

KORMARC 245필드 입력형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MARC 21의 입력설계 원칙에 근거하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245 Field in KORMARC

이 경 호(Kyung-Ho Lee)**

< 목 차 >

I. 서론	6. 245필드 관련 부출지시 상의 문제점
II. KORMARC와 MARC 21의 입력설계 원칙	IV. KORMARC 245필드의 입력형식 개선방향
1. MARC 21	1. 245필드 식별기호 정의의 세분화
2. KORMARC	2. 관제기술의 개선안
III. KORMARC에서 245필드의 기술상의 문제점	3. 책임표시에서의 식별기호(\$e) 사용의 개선안
1. 245필드에서 지시기호 표현의 문제점	4. 권차, 권차정보 기술의 개선안
2. 관제기술의 문제점	5. 책임표시에서 저작역할어 기술방법 개선안
3. 본표제 기술상의 문제점	6. 4인 이상 합저서의 목록기술의 개선안
4. 책임표시사항과 식별기호 사용의 문제점	V. 결론
5. 권차, 권차표제 기술의 문제점	

초 록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을 2003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2006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많은 교육기관과 도서관에서 이를 근거로 목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된 한국목록규칙 제4판 과 한국문헌자동화 목록형식 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화목록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45필드의 기술형식에 대하여 KCR4판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KORMARC의 245필드 입력형식 가운데 원괄호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형식, 식별기호 사용법, 권차의 기술법, 책임표시사항의 기술법, 그리고 4인 이상 합저의 기술법에 대해 입력형식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한국목록규칙 제4판, KORMARC, MARC, 245필드, 식별기호, 관제기술

ABSTRACT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has developed the Korean Cataloging Rules, fourth edition(KCR4) in 2003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eveloped integrated version of KORMARC formats in 2006 on the basis of KCR4.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ibraries are currently cataloging based on KORMARC. Nevertheless, we have encountered many problems on KCR4 and KORMARC formats which needed to be modified. This study is aimed at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KCR4 in describing 245 field which has a crucial and important rol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methods of the use of parenthesis and subfield code in 245 field, and presents a description format of volume number, statement of responsibility and joint works including more than four persons.

Keywords: Korean Cataloging Rules, KCR4, MARC, KORMARC, 245 field, Subfield code

* 이 논문은 2007년도 대구대학교 학술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lee@daegu.ac.kr)

• 접수일: 2009년 2월 18일 • 최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I. 서론

도서관목록이 수작업목록에서 자동화목록으로 바뀌어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1970년대 이전까지 사용되던 도서관의 카드 목록이 컴퓨터에 의한 인쇄형 카드목록, 나아가 온라인 목록(OPAC)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 기반으로 개발된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이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온라인 환경의 목록용이 아닌 카드목록의 작성을 손쉽게 하기 위해 목록데이터를 컴퓨터로 입력하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목록카드를 인쇄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온라인 환경에 맞게 보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은 MARC이 생성되던 초기 환경과 너무나 다르다. MARC을 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인쇄형 목록카드 생산을 전제로 하였지만 지금 일반 도서관에서 인쇄형 목록카드를 생산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다. 따라서 지금은 제1세대의 카드목록을 전제로 한 온라인 목록에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진정한 온라인 목록규칙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온라인목록의 기술 형식 및 요소를 가운데 과거 카드목록의 잔재로 남아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오늘날의 목록환경에 맞는 형식으로 탈바꿈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2003년에 「한국목록규칙 제4판」(KCR4)¹⁾을 출판하였고, 2006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²⁾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통합서지용 목록형식은 KCR4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3년에 출판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³⁾을 개정하여 출판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KCR4에서도 목록기술 규칙과 예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KORMARC의 통합서지용에서 같은 문제⁴⁾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245필드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서의 오류나 문제점은 목록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잘못된 부분은 하루 속히 시정하여 교육 현장이나 도서관 실무에서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목록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45필드에 대해 KCR4에서의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KORMARC의 입력형식에 대해 MARC21의 설계원칙에 입각하여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한국목록규칙, 제4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6).

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3).

4) 이경호, 김정현,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7권 제4호(2006. 12), pp.201-223.

II. KORMARC와 MARC 21의 입력설계 원칙

1. MARC 21

가. 본표제(\$a) 반복 사용 불가의 원칙(1 레코드 1 표제 중심의 목록)

MARC 21에 의한 목록은 1 레코드 1 표제 중심의 목록이다. 이는 본표제(\$a)를 반복 사용할 수 있는 KORMARC 목록과는 엄격하게 다른 본표제 반복사용 불가의 목록원칙이다. 즉 하나의 목록 레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즉 한 저작을 목록함에 있어서는 본표제는 오로지 하나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책 한권에 동일저자의 작품이 2편이나 3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목록작성에서 본표제는 하나만 인정하여 본표제(\$a)를 한번만 기술하도록 하고 나머지 표제는 서지기술방법에 따른 부호인 반쌍점(:)을 사용하여 표제관련정보로 간주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245 필드 내에서 본표제 기술의 계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두 번째 이하의 저작은 표제관련 정보로 간주하여 기술한 만큼 별도로 부출하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본표제(\$a)가 반복사용이 되지 않으면 본표제(\$a)가 존재해야 나머지 식별기호도 사용 가능하기에 \$k, \$n, \$p, \$8의 필드링크를 제외한 그 어떤 식별기호도 반복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술형식과 식별기호 사용법⁵⁾은 다음과 같다. (NR)은 반복불가, (R)은 반복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45 - TITLE STATEMENT(NR)

식별기호(Subfield Codes)

- \$a - Title(NR)
- \$b - Remainder of title(NR)
- \$c - Statement of responsibility, etc.(NR)
- \$f - Inclusive dates(NR)
- \$g - Bulk dates(NR)
- \$h - Medium(NR)
- \$k - Form(R)
- \$n - Number of part/section of a work(R)
- \$p - Name of part/section of a work(R)

5) Library of Congress, *MARC 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 2004 Concise Edition*.
 <<http://www.loc.gov/marc/bibliographic/ecbdhome.html>> [cited 2009. 02. 1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s - Version(NR)

\$6 - Linkage(NR)

\$8 - Field link and sequence number(R)

MARC 21 기술형식에 따른 본표제 반복 사용 불가의 원칙에 의거하여 목록한 간단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레코드 1 표제 중심의 목록, 예1>

245 14\$aThe way of herbs ;\$bThe healing herbs ; The food pharmacy
/\$dJohn Heinerman.

740 42\$a The healing herbs

740 42\$a The food pharmacy

<1 레코드 1 표제 중심의 목록, 예2>

245 14\$aHamlet ;\$bRomeo and Juliette ; Othello /\$cWilliam Shakesphere.

740 0 \$aRomeo and Juliette.

740 0 \$aOthello.

나. 1 레코드 1 저작 중심의 목록

MARC 21에 의한 목록의 또 다른 특징은 1 레코드 1 저작 중심의 목록이란 점이다. 이것의 의미는 책 한권에 복수의 저자와 저작이 찍지어 수록된 경우에는 AACR2R에 근거하여 첫 번째 저자의 저작 위주로 본표제(\$a)를 한번만 기재하여 기술하고, 나머지 두 저작까지는 첫 번째 저작을 기술한 후 온점 다음에 아무런 식별기호 없이 연이어 기술하는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 두 번째 저작과 세 번째 저작은 저작의 서지정보를 기술하고 보여주는 기능만 할 뿐, 접근점의 기능은 가지지 못하게 되어 이들 표제에 대한 부출은 별도의 필드를 사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표제 부출의 경우에도 246필드는 245필드의 본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246필드가 아닌 700필드나 740필드에서 부출 한다. 이러한 1 레코드 1 저작 중심의 목록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MARC 21에 의한 1 레코드 1 저작 중심의 목록, 예1>

100 \$aHale, Matthew, Sir,\$d1609-1676.

245 14\$aThe analysis of the law /\$cSir Matthew Hale. The student of companion /

Gile Jacob.

700 12\$aJacob, Gile,\$d1686-1744

740 4 \$aThe student of companion.

<MARC 21에 의한 1 레코드 1 저작 중심의 목록, 예2>

100 \$aHale, Matthew, Sir,\$d1609-1676.

245 14\$aThe analysis of the law /\$cSir Matthew Hale. The student of companion /
Gile Jacob.

700 12\$aJacob, Gile,\$d1686-1744.\$tstudent of companion.\$f1978.

2. KORMARC

가. 1 레코드 복수 표제 지향 목록(본표제 계층 반복쓰기 목록)

KORMARC⁶⁾에서 복수 표제 지향의 목록이라고 한 것은 MARC 21의 목록과는 달리 한권의 책이 동일저자의 다작으로 된 경우 245필드에서 본표제(\$a)⁷⁾를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KORMARC에서는 \$a(본표제)를 반복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1저자나 동일저자의 저작에서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2개 이상의 표제가 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KCR4판 1.1.1.2의 10⁸⁾에 근거하여 4편이상의 작품이 수록된 경우에는 첫 작품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3 작품까지는 본표제(\$a)를 반복 사용하여 목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책 한권에 동일저자의 작품이 다수인 경우 MARC 21의 목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입력이 요구된다(Ⅲ 장 계층반복쓰기 입력의 예 참조).

계층반복쓰기 예에서와 같이 245 필드에서는 본표제인 \$a가 3회까지 반복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표제가 3개인 자료로 간주하여 목록하고 있는 바, \$a에 기술한 3개의 표제는 본표제인 만큼 별도의 부출지시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KORMARC에서는 740필드를 자동생성 하기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MARC 21보다 오히려 입력이 어렵고 중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단지 사서의 입장에서 245필드에서 입력한 표제의 데이터를 740필드에서 다시 입력하는 것은 중복입력이기 때문에 245필드에서 두 번째 이하에서 사용하는 본표제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740필드에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

6)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 pp.522-532.

7)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서 식별기호는 ▼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모두 \$를 사용하였음.

8)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전계서, p.23.

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245필드에서 본표제(\$a)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서의 입장에서 입력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이를 위해 목록의 이론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면, 반복 사용한 \$a는 740필드에 데이터를 나타낸 다음에는 반복 사용한 \$a의 식별기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삭제하도록 하여야 목록의 기본 틀을 저해하지 않고, 나아가 국제적인 MARC 데이터의 호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KORMARC에서 \$a(본서명)를 반복 사용할 수 있게끔 함에 따라 MARC 21에서는 볼 수 없는 1저자의 다작의 경우는 계층 반복쓰기 형식이 적용되고 있다. 계층 반복쓰기란 245 필드 내에서 본표제와 관련된 식별기호 전체 블록(\$a~\$8)을 1 라운드라고 하면, 라운드가 1회만 사용된 경우에 한해 본표제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이다. 계층반복쓰기는 책 한권에 1저자의 다작이 수록된 경우(3저작까지)에 나타나는 기술형식이다.

나. 1 레코드 복수 저작 지향 목록(회순 반복 지향 목록)

KORMARC의 입력설계에서 245필드의 기술은 서로 다른 저자의 작품인 경우에 본표제(\$a)를 반복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라운드(round)가 반복된다. 라운드의 반복이란 245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별기호 \$a에서 \$8까지를 한 라운드라고 볼 때, 이러한 형식이 반복사용 된다는 의미이다. 라운드의 반복은 목록 하고자 하는 저작이 저자와 짝지어 수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해당 저자와 저작을 짝지어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KCR4 1.1.1.2의 10⁹⁾에 따라 KORMARC에서도 라운드의 반복은 3회까지만 제한하고 있다. KORMARC에서 회순반복 사용하기의 적용은 MARC21의 식별기호 사용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써 KORMARC 목록의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대목이다.

원래 전통적인 목록은 1저작, 1표제 중심으로 목록하고 나머지 저작은 대체로 주기를 하고, 부출로서 접근을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KORMARC 목록에서는 245필드에서 복수의 저작과 개개의 작품이 있는 경우, 3명의 저작까지는 본표제로 간주하여 기술하도록 하여 \$a를 반복 사용하게끔 라운드 반복기술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Ⅲ.3.2 회순반복쓰기 입력의 예 참조>

다. 식별기호의 반복사용 원칙

245필드의 목록에서 KORMARC목록이 MARC 21과 다른 점은 식별기호의 반복사용이 가장 대표적이다. MARC 21에서는 본표제(\$a)를 반복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해 \$a에 이어 나오는 식별기호도 자동적으로 반복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KORMARC에서는 본표제(\$a)의 반복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본표제에 이어 나오는 나머지 식별기호도 반복사용이 될

9) 상계서, p.23.

수밖에 없어 245필드의 본표제 기술이 너무나 복잡한 양상을 띤다.

또한 본표제의 반복사용과 함께 책임표시사항에서 개별 저자에 대해 각각 식별기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식별기호의 반복사용이 큰 특징으로 여겨진다.

라. 필드 마지막에 온점(.)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

ISBD 서지기술법에 따라 서지기술을 하게 되면, 서지기술 단위와 단위 사이에는 온점 빈칸 이중불임표 빈칸의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형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45필드. -- 판표시. -- 자료특성사항. -- 발행지사항. -- 형태사항.
 -- (총서사항) -- 주기사항. -- 표준번호 사항

그리고 이러한 서지기술은 MARC형식에서 데이터를 출력할 경우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KORMARC의 경우에는 목록데이터를 입력할 때 위의 서지데이터 출력 요소의 마지막에 온점을 입력하지 않은 관계로 서지데이터를 출력할 때 임의로 각 필드 마지막에 온점을 찍어 출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지데이터베이스(MARC)에서 서지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되,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는 연결부호(빈칸 이중불임표 빈칸)만 삽입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KORMARC 데이터베이스에서 ISBD 형식으로 서지데이터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각 필드 마지막에 온점을 찍고 난 다음, 빈칸 이중불임표 빈칸을 삽입하여 출력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수반된다.

III. KORMARC에서 245필드의 기술상의 문제점

1. 245필드에서 지시기호 표현의 문제점

KORMARC의 245필드 기술에서 표제의 부출여부와 출력의 형태를 정의하는 곳이 지시기호이다. 그리고 KORMARC에서 지시기호의 사용법¹⁰⁾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1지시기호 - 표제의 부출 여부

0 -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1 - 표제를 부출함

10)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 p.522.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2 - 관제를 포함해서 부출함

제2지시기호 - 관제 및 관사의 출력형태

0 - 그대로 인쇄

1 -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245필드에서 제1지시기호는 본표제의 부출여부를 나타낸다. 따라서 MARC21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자동화 목록에서는 표제를 부출하지 않는 형식인 0과 표제를 부출하는 형식인 1을 기술하고 있다. MARC 목록에서 접근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점이 되는 필드를 사용하여 목록기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근점이 되는 필드는 대부분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부출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접근점이 되는 필드를 사용하여 서지 정보를 기술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나 245필드인 본표제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접근필드로서 부출여부의 정의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접근이 허용되는 필드이다. 그런데 MARC 목록을 하는 경우 245필드에서 제1지시기호를 부출로 하느냐(1) 하지 않느냐(0)는 대단히 중요한 입력요소이다. 사실은 부출에 관계없이 본표제는 무조건 접근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다.

MARC 목록은 원래 수작업용의 목록카드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동화 하면서 발전한 목록이다. 처음에 MARC 목록은 컴퓨터로 목록데이터를 입력하여 축적하여 둔 상태에서 목록카드를 인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고, 목록카드를 인쇄할 때, 저자명 기본기입이면(1XX가 있는 형태) 표제를 부출 하여야 서명목록카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제를 부출한다고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반대로 서명이 기본기입인 형식에서는 서명자체가 접근점이 되기 때문에 부출이 필요 없게 되어 부출하지 않는다고 정의하며 이것이 오늘날의 MARC목록에서 잔존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제1지시기호에서 부출여부를 정의하지 않는다 하여도 자동화목록에서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 다만 인쇄형 목록카드를 출력하는 경우에 제대로 된 목록카드를 출력하기 위해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는 내용이다. 지금의 MARC 목록에서 지시기호의 대부분이 인쇄형 목록카드의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위해 기술하고 있으며, 온라인 목록에서 목록자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KORMARC 기술형식에서는 제1지시기호에 관제를 포함해서 부출하는 형식으로 2를 추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제를 포함해서 부출하지 않는 경우와 관제를 제외하고 부출하는 경우, 관제를 제외하고 부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다. 관제가 본표제 앞에 사용된(통상적으로 원괄호를 사용) 경우에 표목이 있고 없음에 따라 부출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관제를 포함해서 부출하는 형식이 있으면 관제를 포함해서 부출하지 않는 경우, 관제를 제외하고 부출하는 경우, 관제를 제외하고 부출하지 않는 경우도 정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KORMARC 기술형식 245필드에서 관제가 있는 경우, 관제를 포함해서 부출 하는지의 여부와 관제를 포함하지 않고 부출하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미완의 상태로 되어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관제기술의 문제점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선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제기술의 문제점

KCR4판 1.1.1.2의 6¹¹⁾에서 관제에 관한 기술을 보면, “본표제 앞이나 위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총서표제, 대등표제, 원표제, 저작자, 발행처, 회차, 권호차, 연월차, 판차, 간행빈도 등의 요소에 옮겨 기술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제로 취급하며, 그 관제가 본표제에 종속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원괄호로 묶어 본표제 앞에 기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KCR4판에서 본표제에 종속되어 있는 관제의 경우에는 원괄호로 묶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KORMARC에서도 관제의 기술은 원괄호를 묶어 사용하고 있다.

(관제 사용의 예)

245 \$a(컴퓨터로 즐기는) 도스게임 26가지 / \$d이만수

245 \$a(新編) 工業熱力學 / \$d盧錫柱, \$e柳圭鉉, \$e宋基弘 共著

위의 예에서와 같이 본표제 앞에 원괄호를 사용하여 관제를 기술하는 것은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원괄호 사용으로 인해 목록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의 주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데이터의 입력에 있어 지시기호의 사용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사서의 목록작업을 어렵게 한다. 현재의 KORMARC 245필드에서 관제에 관한 지시기호 사용의 예는 미완으로 완전하지 않다.

둘째, 입력과 함께 목록데이터의 출력에 있어서도 관제를 포함해서 출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제를 제외하고 출력하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있고, 이해하는데 많은 혼란을 야기 한다.

셋째, 관제가 있는 경우 정보검색의 명확한 접근점, 즉 사서가 검색 접근점으로 어떻게 기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일된 형식의 접근점을 기술할 수 없다.

넷째, 관제가 있는 경우 출력형식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대로 인쇄’가 있는가 하면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가 있다.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를 하고자 한다면 왜 원괄호를 사용하는지도 의문시 된다.

11)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전게서, p.21.

따라서 관계가 있는 문헌의 목록은 245필드의 목록데이터 입력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시기호의 사용도 단순화 하여 사서의 목록업무를 용이하게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본표제 기술상의 문제점

가. 계층(level)반복 사용상의 문제점

KORMARC 기술목록형식에서 245필드의 식별기호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를 목록기술규칙을 적용하여 엄밀히 구분하면, 245필드에서 본표제의 기술은 동일저자의 저작을 목록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저자의 저작을 목록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식별기호의 사용을 정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KORMARC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하나의 표로 기술하고 있어 식별기호의 사용형식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저자의 저작을 목록하는 경우는 1 레코드 복수 표제 지향의 목록으로 본표제 계층 반복쓰기 형식이 되고, 서로 다른 저자의 여러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를 목록하는 경우에는 1 레코드 복수 저자 및 저작 목록으로 회순 반복 쓰기 형식 목록이다.

따라서 245필드에서 본표제의 기술은 크게 계층반복쓰기 형식과 회순반복쓰기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식별기호의 정의도 공통형식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구분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양자를 구분하여 정의하여야 지금의 KORMARC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식별기호의 사용정 의가 잘못 표현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KORMARC 에서의 식별기호 정의〉

\$a 본표제 [반복](3회까지 사용 가능)

\$b 표제관련정보 [반복]

\$x 대등표제 [반복]

\$d 첫 번째 책임표시 [반복불가]

\$e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 [반복]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k 형식 [반복]

\$n 권차 또는 편차 [반복]

\$p 권제 또는 편제 [반복]

\$s 판 [반복불가]

\$8 필드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계층반복쓰기는 한 마디로 동일저자의 저작에 대한 목록이다. 다만 KCR4에서 규정한 대로 KORMARC에서도 동일저자의 작품은 3작품까지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45필드에서 본표제인 \$a는 3번까지 기술할 수 있고 나머지 식별기호는 \$a의 유무에 따라 기술내용의 유무에 따라 기술여부가 결정된다. 계층반복쓰기에서 첫 번째 책임표시(\$d)는 반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회순반복쓰기에서는 반복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KORMARC에서는 \$d는 반복불가라고 기술하고 있어 계층반복과 회순반복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로 볼 수 있다.

본표제가 이어 나오는 \$b - \$8의 내용이 반복사용으로 기술된 이유는 이들 요소의 기술여부가 \$a가 반복되면 이들 요소도 기술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MARC 21의 이론에 의하면, 개개의 \$a 내에서 \$b - \$8은 반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a가 반복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복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층반복쓰기의 정확한 기술형식은 “245 \$a본표제 - \$8 : \$a본표제 - \$8 : \$a본표제 - \$8 / \$d책임사항”과 같이 정의하여야 하며, \$a본표제 - \$8까지 3회 반복사용이 가능하나 \$d 만은 반복사용이 되지 않는 기술형식이다. 계층반복쓰기의 입력 예는 아래와 같다.

〈계층반복쓰기 입력의 예〉

245 \$a사랑 : \$a무정 / \$d이광수

245 \$a사랑 : \$a무정 : \$a흠 / \$d이광수

245 \$a사랑 = \$xlove story : \$b청춘 사랑 이야기 : \$a가을여행 : \$a지리산 : \$b사계절의 풍경 / \$d이광수

245 \$a사랑 = \$xlove story : \$b청춘 사랑 이야기 : \$a무정 : \$a흠 / \$d이광수

위의 예에서 두 번째 자료의 245필드 기술과 부출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1안과 2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안은 245필드에 기술한 \$a를 본서명으로 간주하여 3작품 모두 자동적으로 접근이 되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505필드에서 내용주기를 확장형으로 기술한 경우 이를 별도로 부출해주지 않는 경우와 같은 논리의 목록이며, 2안은 지금의 KORMARC에서와 같이 245에 기술한 두 번째 이하의 \$a에 기술한 내용은 740에 자동적으로 부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목록한 것이다. 2안은 사서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반복하여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이론적인 측면과 결과론적 측면에서 보면, 245필드에 불필요한 \$a가 반복 사용되어 있고, 국제적인 데이터 호환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5 \$a사랑 : \$a무정 : \$a흠 / \$d이광수(1안)

245 \$a사랑 : \$a무정 : \$a흠 / \$d이광수(2안, KORMARC 안)

740 \$a무정

740 \$a흙

나. 회순(round)반복쓰기에서의 문제점

회순반복쓰기 형식에서 식별기호의 사용은 위의 계층반복쓰기 형식에서 정의한 식별기호 세트가 연속적으로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층반복쓰기가 "\$a본표제 / \$d저자"의 형식이라면, 회순반복쓰기의 형식은 "\$a본표제1 / \$d저자1.\$a본표제2 / \$d저자2.\$a본표제3 / \$d저자3"의 형식이 된다. 따라서 식별기호 \$d도 반복이 가능하게 된다. 회순반복쓰기의 식별기호 형식에 의한 입력의 예는 다음과 같다.

<회순반복쓰기의 입력 예>

245 \$a사랑 / \$d이광수.\$a열정 / \$d오영실(2 라운드 사용 예)

740 \$a열정

245 \$a사랑 / \$d이광수.\$a열정 : \$b나의 청소년기 / \$d오영실(2 라운드 사용 예)

740 \$a열정

245 \$a사랑 [외] / \$d이광수. \$a열정 [외] / \$d오영실(2 라운드 사용 예)

740 \$a열정

245 \$a사랑 / \$d이광수. \$a순애보 = \$xLove story / \$d이미영, \$e이윤숙.

\$a열정 / \$d오영실(3 라운드 사용 예)

740 \$a순애보

740 \$a열정

KORMARC 형식으로 회순반복쓰기에 방식에 의해 실제 목록을 하면, 위의 네 번째 예는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245필드에서 두 번째 이하의 \$a와 \$e는 700필드와 740필드에 데이터를 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입력데이터가 불필요하게 사용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 경우 대등표제는 246필드에서 식별기호(\$x)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MARC 21에서 246필드는 본표제와 관련이 있는 표제를 기술하도록 정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KORMARC의 경우 반복사용된 본표제는 본표제로 인정한다기보다는 단순히 740필드에 뿌려주기 위한 기능으

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등표제를 246필드에서 정의한 대로 대등표제를 기술할 수밖에 없어 목록기술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겠다.

100 \$a이광수
 245 1 \$a사랑 / \$d이광수. \$a순애보 = \$xLove story / \$d이미영, \$e이윤숙.
 \$a열정 / \$d오영실
 246 19 \$xLove story
 700 \$a이미영
 700 \$a이윤숙
 700 \$a오영실
 740 \$a순애보
 740 \$a열정

다. KCR4에서 4인 이상 합집의 기술상 문제점

KCR4 1.1.1.2의 10¹²⁾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서 “4인이상의 합집의 경우, 종합표제나 대표표제 없이 각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만 열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4 저자 이상의 합집은 열기된 것 중의 첫 저작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생략부분은 동양서의 경우 석점 줄임표 없이 ‘외’ 또는 ‘外’를, 서양서의 경우 석점 줄임표 다음에 ‘et al.’을 각괄호로 묶어 표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기술방법의 예는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예시는 KCR4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방법과는 다르다. KCR4에서 4인 이상의 합집은 첫 저작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되, 생략부분은 동양서는 석점 줄임표 없이 ‘외’를 각괄호로 묶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 기술규칙대로 기술하면, 아래의 수정 예시와 같이 ‘먼 그대의 손 / 김준성. [외]’가 ‘먼 그대의 손 [외] / 김준성 [외]’의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KCR4에 규정한 대로 기술하면, ‘먼 그대의 손 [외] / 김준성’의 형식이 되어 김준성이 쓴 ‘먼 그대의 손’ 이외 여러 저작이 수록되어 있는 형식이 되어 저작자 다음에도 [외]의 형식으로 기술하여야 정확한 기술이 된다. 그러나 KCR4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도 문맥상으로 보면 전혀 틀린 기술방법도 아니다. 그렇지만 기술규칙에 명시 없이 기술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만큼,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술규칙에 명시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KCR4에서 기술하고 있는 4인 이상 합집의 기술방법 예〉

먼 그대의 손 / 김준성. [외]

12) 상계서, p.23.

내용: 먼 그대의 손 / 김준성 -- 내가 네 사촌이나 / 이청준 -- 금의환향 / 김주영 -- 검은
땀기 두루기 / 한승원 -- 세월의 너울 / 김원일 -- 달아난 악령 / 이문열

<올바른 수정 예시>

먼 그대의 손 [외] / 김준성 [외]

내용: 먼 그대의 손 / 김준성 -- 내가 네 사촌이나 / 이청준 -- 금의환향 / 김주영 -- 검은
땀기 두루기 / 한승원 -- 세월의 너울 / 김원일 -- 달아난 악령 / 이문열

4. 책임표시사항과 식별기호 사용의 문제점

KCR4 1.0.5.11의 513)에 의하면, “쌍점(:)은 표제관련정보, 저작역할어가 명사형으로 저자명 앞에 놓였을 때 저자명, 발행처 ... 가격표시사항 앞에 사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KORMARC에서는 이를 근거로 목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KCR4와 KORMARC의 책임표시 기술부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한글학회50년사 / 위은이: 한글학회 50돌기념사업회

Mastercam version 7.2c [전자자료] /공저: 권동호, 박용민

245 00 \$a한글학회50년사 /\$d위은이: 한글학회 50돌기념사업회

245 00 \$a번데기 야구단 /\$d글·그림: 박수동

위의 예시는 KCR4의 규칙대로 작성하면 저작역할어가 명사형으로 사용된 경우로서 저자명 앞에 쌍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목록기술은 목록의 으뜸정보원에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여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의 역할어가 저작자 다음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것이 관례라고 한다면, 지정된 순서로 정보원에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올바른 순서로 이를 바꾸어 목록정보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도 위치를 바꾸어 기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자동화목록시대의 추세와도 맞으며, 목록자는 해당 목록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옮겨 기술하는데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역할어가 명사형으로 저자명 앞에 오는 경우는 일반적인 책임사항과 마찬가지로 저작역할어를 저작자 뒷부분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3) 상계서, p.16.

한글학회50년사 / 한글학회 50돌기념사업회 엮음

Mastercam version 7.2c [전자자료] / 권동호, 박용민 공저

또한 KORMARC의 245필드에서 책임표시사항의 식별기호 사용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45 \$a본표제/ \$d첫번째 저자, \$e두번째 저자, \$e세번째 저자; \$e역할이 다른 저자1, \$e역할이 다른 저자2.. ; \$e역할이 다른 저자...(KORMARC)

245 \$a본표제/ \$c첫번째 저자, 두번째 저자, 세번째 저자 ... ; 역할이 다른 저자1, 역할이 다른 저자2 ... ; 역할이 다른 저자...(MARC 21)

위의 기술방식에서 KORMARC과 MARC 21의 책임표시사항 기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KORMARC에서는 모든 저작자에게 식별기호를 부여하는 반면, MARC 21에서는 \$c하에 모든 책임표시사항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이다. KORMARC에서 개개 저자마다 식별기호를 붙여 기술하는 이유는 단순히 245필드에 기술한 저작자들을 7XX 필드에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뿌려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데이터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는 사서의 수정작업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단순히 실무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식별기호를 반복 사용하는 예는 앞서 지적한 본서명(\$a)의 반복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식별기호를 사용한다면, 이 식별기호 자체만으로 505필드의 확장형과 같이 사서의 도움이 없이 자동적으로 접근점이 부여되어 중복기술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단순히 사서의 목록정보 입력편의를 위해 식별기호를 반복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국제간의 서지정보공유에도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5. 권차, 권차표제 기술의 문제점

KCR4의 1.1.5.2의 114)에 의하면 “권차, 회차, 연차는 식별상 그 표시가 필요할 경우,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완질을 갖추지 않을 예정에 있는 자료이거나, 또는 일괄해서 저록으로 작성하지 않고 권책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차서를 표제 다음에 온점을 앞세워 기술할 수 있다”로 하여 완질의 경우는 권차정보를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KORMARC¹⁵⁾에서도 권차, 권차표제의 기술에 관한 내용 가운데 완질인 경우는 형태사항

14) 상계서, p.31.

15)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 p.529.

에서 책수를 기재하고, 245필드의 권차부분에는 전체권호를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개별 권차와 권차 표제를 245필드에 기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KCR4에서 권차, 권차표제의 예시〉

245 20 \$a(재미있는) 수학여행 / \$d김용운,\$e김용국 지음

300 \$a4책

245 20 \$a(재미있는) 수학여행. \$n1, \$p수의 세계 / \$d김용운,\$e김용국 지음

245 20 \$a(재미있는) 수학여행. \$n2, \$p논리의 세계 / \$d김용운,\$e김용국 지음

반면, KCR4의 1.1.1.2에서는 “두 권 이상으로 구성된 자료에서 권책에 따라 표제가 다른 것은 같은 것끼리 묶어 독립저록을 한다. 권책에 따라 표제의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주기 하도록 아래와 같이 예시”¹⁶⁾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의 권차 기술내용과 달리 부분 권차를 기술하고 있다.

조선말큰사전.1-2 / 조선어학회 지음

전질 6권 중, 권 3-6은 “큰사전”으로 개제됨

큰사전. 3-4 / 한글학회 지음

전질 6권 중, 권1과 2의 표제: 조선말큰사전 / 조선어학회 지음

위의 예시에서 보면 KCR4에서 규정하고 권차 기술에 관련된 내용도 상호간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KCR4의 권차표시에서는 완질은 권차를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의 앞부분인 본표제 기술부분에서 예시한 「조선말큰사전」의 표제변경에 따른 권차기술의 예시에서는 권차의 일부분을 기술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245필드의 권차 기술은 개별 권차와 권차표제 이외에 완질이나 부분 권차의 경우는 권차표제없이 권차정보만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다만 도서관에 따라서는 권차정보 근거로 청구기호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혼란이 있어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청구기호에서 권차정보는 049필드에서 목록자료의 개별 권차정보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KCR4는 한국에 있어 목록기술의 바이블이다. 이 바이블을 근거로 교육용 교재가 개발되고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KCR4에서의 오류는 교육용 교재의 오류를 가져오고, 잘못

16)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전계서, p.25.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수정되어 교육기관에서 혼란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245필드 관련 부출지시 상의 문제점

MARC 21에서는 본표제를 기술할 때 식별기호 \$a를 반복기술하지 않는다. 즉, 245필드에서 본표제를 반복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하나의 목록자료, 즉 한 목록레코드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내용 중심으로 목록하고 나머지 내용은 부출을 통해서 접근이 되도록 한다는 방식이다. 철저한 1레코드 1내용 중심의 목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KORMARC는 245필드에서 본표제(\$a)를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록의 근본이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와 목록을 하는데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본표제(\$a)의 계층반복쓰기와 회순반복쓰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본표제(\$a)의 반복쓰기가 진정한 의미로서, 본표제에 해당되는 의미로 \$a를 반복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서의 입력의 편의를 위해 반복기술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본표제의 의미로 \$a를 반복기술하였다면 본표제의 역할을 부여하고 목록을 할 수 있어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만약 반복 기술한 \$a를 본표제로 인정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처음 기술된 본표제와 마찬가지로 부출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접근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의 KORMARC에서는 별도로 부출해 주고 있어 사서의 작업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a의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MARC 21에서는 245필드와 246필드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존재한다. 245필드는 저작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이 함께 수록된 경우에, 본표제는 하나이고 나머지 저작의 표제는 식별기호 없이 기술만 한다. 그리고 접근을 위해 부출을 한다. 부출을 하되 본표제(\$a)와 관련이 있는 표제는 246필드에 부출하고, 본표제와 관련이 없는 표제는 740필드에 부출을 한다. 그러나 KORMARC에서는 본표제(\$a)를 반복사용 함으로써, 즉 본표제가 복수가 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한마디로 KORMARC 형식으로 품질 좋은 목록이 만들어 지기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IV. KORMARC 245필드의 입력형식 개선방향

1. 245필드 식별기호 정의의 세분화

KORMARC에 의한 목록의 경우에는 <본표제를 반복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본표제의 계층

반복 쓰기), 그리고 <본표제의 회순 반복쓰기>에 따라 식별기호의 사용법이 구분되어 야 한다. 그 이유는 MARC21의 경우에는 본표제를 반복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KORMARC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정확한 식별기호의 사용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식별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본표제를 반복 사용할 수 없는 경우>¹⁷⁾

- \$a 본표제 [반복불가, 필수]
- \$b 표제관련정보 [반복불가, 선택]
- \$x 대등표제 [반복불가, 선택]
- \$d 첫 번째 책임표시 [반복불가, 필수]
- \$e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 [반복, 선택]
- \$h 자료유형표시 [반복불가, 선택]
- \$k 형식 [반복, 선택]
- \$n 권차 또는 편차 [반복, 선택]
- \$p 권제 또는 편제 [반복, 선택]
- \$s 판 [반복불가, 선택]
- \$8 필드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선택]

<적용 예>

- 245 1 \$a건설자재총람 = \$xConstruction equipment catalogue : \$b건축자재.
\$n1,\$ 건축자재 편 / \$d대한건설협회 편
- 245 1 \$a바이엘지도법 : \$b레슨 33가지 / \$d바이엘 저 : \$e한원섭 역

<본표제의 계층 반복쓰기 형>¹⁸⁾

- \$a 본표제 [반복, 필수](3회까지 사용 가능)
(아래의 \$b에서 \$8은 \$a가 반복 기술되는 경우 \$a에 종속된 내용이며 선택사항이다.
단 \$d는 반복사용 불가)
- \$b 표제관련정보 [반복, 선택]
- \$x 대등표제 [반복, 선택]

17) 이 형식은 "\$a본표제 ... 기타식별기호 / \$d 책임표시"의 형식임.

18) 이 형식은 "\$a본표제 : \$a본표제 : \$a본표제 ... / \$d 책임표시"의 형식임.

- \$d 첫 번째 책임표시 [반복불가, 필수]
- \$e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 [반복, 선택]
- \$h 자료유형표시 [반복, 선택]
- \$k 형식 [반복, 선택]
- \$n 권차 또는 편차 [반복, 선택]
- \$p 권제 또는 편제 [반복, 선택]
- \$s 판 [반복, 선택]
- \$8 필드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선택]

<적용 예>

- 245 1 \$a사랑: \$a무정 :\$a흠 /\$d이광수
- 245 \$a사랑 = \$xlove story :\$b청춘 사랑 이야기 :\$a가을여행 :\$a지리산 :\$b사계절
의 풍경 /\$d이광수
- 245 \$a사랑 = \$xlove story :\$b청춘 사랑 이야기 :\$a무정 :\$a흠 /\$d이광수

<본표제의 회순 반복쓰기 형>¹⁹⁾

- \$a 본표제 [반복, 필수]
(\$b에서 \$8은 \$a가 반복 기술되는 경우에 \$a에 종속되어 기술이 필요한 경우이며, 각 \$a(각 계층)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함)
- \$b 표제관련정보 [반복, 선택]
- \$x 대등표제 [반복, 선택]
- \$d 첫 번째 책임표시 [반복, 필수]
- \$e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 [반복, 선택]
- \$h 자료유형표시 [반복, 선택]
- \$k 형식 [반복, 선택]
- \$n 권차 또는 편차 [반복, 선택]
- \$p 권제 또는 편제 [반복, 선택]
- \$s 판 [반복, 선택]
- \$8 필드링크와 일련번호 [반복, 선택]

19) 이 형식은 “\$a본표제 :\$a본표제 ...기타식별기호 /\$d 책임표시. \$a본표제 :\$a본표제 ...기타식별기호 /\$d 책임표시”의 형식임.

〈적용 예〉

245 \$a사랑 / \$d이광수. \$a순애보 = \$xLove story / \$d이미영, \$e이윤숙

245 \$a사랑 / \$d이광수. \$a청춘 = \$xspringtime of life / \$d강나영 글 ; \$e이만화 그림.

\$a열정 / \$d오영실

2. 관제기술의 개선안

KCR4관을 적용하여 목록하면, 본표제 앞에 오는 관제 중에서 본표제에 종속된 관제의 기술은 원괄호로 묶어 본표제 앞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목록에서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 어려움이란 245필드에서 제1지시기호의 사용상의 복잡성 문제와 더불어 인쇄여부를 결정하는 제2지시기호의 사용, 그리고 실제 목록자의 혼란, 본표제의 정확한 검색 접근점 제공의 원칙 부재 등이다.

본표제에 종속된 관제를 기술하기 위해 지금의 KORMARC와 같은 지시기호 사용법은 자동화 목록의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본표제에 종속된 관제의 기술방법은 원괄호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방법과 원괄호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방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괄호를 사용하여 관제를 기술하는 방안

본 연구에서 원괄호를 사용하여 관제를 기술하는 방안은 현재의 KCR4나 KORMARC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관제형식의 기술은 원괄호를 사용하는 경우 MARC21의 제2 지시기호인 '배열에서 제외되는 문자'와 같은 기능적 의미를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본표제의 배열, 즉 색인이나 접근점의 검색 때는 원괄호 속의 내용을 무시하도록 하고, 본표제를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원괄호와 원괄호 안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또 필요하다면 동양서의 경우 246필드에 관제를 본표제 앞에 기술하여 부출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원괄호의 사용은 이해가 쉽고 간단하며, 적용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서양서를 KORMARC 형식으로 목록하는 경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지시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안형식: 지시기호의 정의〉

제1지시기호 - 표제의 부출 여부

0 -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1 - 표제를 부출함

제2지시기호 - 본표제의 관제형식 제어

0 - 내용 없음

1 - 원괄호가 사용되어 있음

<제안형식: 기술방법의 예>

245 11 \$a(컴퓨터로 즐기는) 도스게임 26가지 / \$d이만수²⁰⁾

246 1 \$a컴퓨터로 즐기는 도스게임 26가지

<표제색인> 도스게임 26가지

<출력형식>(컴퓨터로 즐기는) 도스게임 26가지 / 이만수

245 11 \$a(新編) 工業熱力學 / \$d盧錫柱, \$e柳圭鉉, \$e宋基弘 共著

246 \$a신편 공업열역학

<표제색인> 工業熱力學

<출력형식>(新編) 工業熱力學 / \$d盧錫柱, \$e柳圭鉉, \$e宋基弘 共著

245 11 \$a(The) plays of Oscar Wilde / \$dAlan Bird

<표제색인> plays of Oscar Wilde

<출력형식> (The) plays of Oscar Wilde / Alan Bird

나. 표제지에 나타난 대로 기술하는 방안

표제에 종속된 관제를 원괄호로 묶어 표제앞에 기술할 것이 아니라 표제지에 있는 그대로 기술 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경우 본표제의 기술은 본표제에 종속된 형식으로 관제를 기술하는 것 과 관제를 표제관련 정보로 간주하여 기술하는 두 가지 유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본표제의 기술은 이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 기술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표제는 종 속된 관제형식 그대로 기술하고, 246필드에 종속된 표제를 표제관련정보로 기술하는 형식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제안 형식에 따른 245필드의 지시기호와 표제에 종속된 관제가 있는 저작의 목록 예 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 이 방식을 적용하면, OPAC에서의 출력은(컴퓨터로 즐기는) 도스게임 26가지가 되고, 검색은 “도스게임 26가 지”나 “컴퓨터로 즐기는 도스게임 26가지” 모두 가능하다.

〈제안형식: 지시기호의 정의〉

제1지시기호 - 표제의 부출 여부

0 -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1 - 표제를 부출함

제2지시기호 - 미정의

〈제안형식: 기술방법의 예〉

245 1 \$a컴퓨터로 즐기는 도스게임 26가지 / \$d이만수

246 \$a도스게임 26가지 : 컴퓨터로 즐기는

245 11 \$a新編 工業熱力學 / \$d盧錫柱, \$e柳圭鉉, \$e宋基弘 共著

245 \$a공업열역학 : 신편

상기에서와 같이 245필드에는 종속된 관계형식 표현 그대로 원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기술하고 246필드에 종속된 관계를 표제관련 정보로 간주하여 기술하면, 본표제의 기술이 지금의 KCR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간단, 명료하다. 또한 지시기호의 사용도 간단하고, 출력형식은 정의할 필요로 없으며, 사서의 작업도 아주 단순화 되는 장점이 있다.

3. 책임표시에서의 식별기호(\$e) 사용의 개선안

KORMARC 기술목록형식의 245필드에서 MARC 21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식별기호의 반복사용일 것이다. 반복 사용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인 본표제의 반복에서 오는 계층반복쓰기와 회순반복쓰기, 그리고 책임표시사항에서의 \$e의 반복이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표시에서의 식별기호 반복쓰기는 목록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식별기호의 진정한 의미는 MARC 목록데이터가 가변장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코드의 전체길이나 필드 길이가 고정장 레코드나 필드처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컴퓨터가 정보를 검색하여 하나의 레코드에 접근하였을 경우, 원하는 필드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여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거나 옮기거나 인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300필드의 형태사항 필드에는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의 세 종류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이들 데이터 가운데에서 한 종류의 데이터만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 필드내에서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인 서브필드코드(subfield code)가 식별기호인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별기호는 레코드내의 정보를 정확히 식별하여 인쇄형 목록카드를 출력한다든지, OPAC이나 각종 서식을 출력할 때 보다 정교하게 출력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MARC 목록에서 설계된 식별기호는 목록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저장된 목록데이터를 보다 잘 조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KORMARC에서 본표제(\$a)의 반복쓰기에 나타나는 \$a나 책임표시에서의 \$e는 이러한 원래의 취지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MARC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MARC 21에서는 이러한 적용을 찾아 볼 수 없지만 KORMARC에서는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취지는 원래의 식별기호의 사용법과는 달리 사서의 목록작업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목록의 기본 틀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목록의 이론은 국제간의 약속과 신뢰가 있는 만큼 이것은 지켜주고, 실무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를 중복 입력하는 불편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결의 방법은 본표제(\$a)나 \$e의 반복사용을 불허하는 방법(이 방법을 적용하고 MARC21의 형식으로 목록하여도 시스템의 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과 부득이 하게 식별기호를 반복사용 사용하여야 한다면, 데이터를 뿌려주고 난 이후에는 반복 사용한 식별기호를 245필드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중복입력도 피하고 데이터의 입력형식에서 불필요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아 이상적이라고 본다. 실무적인 이유로 KORMARC 기술규칙을 독특하게 바꾼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다.

4. 권차, 권차 정보 기술의 개선안

KORMARC에서 권차, 권차표제 입력형식은 KCR4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있다. KCR4에서 권차 정보의 기술은 완질이나 일부분을 목록할 경우에는 형태사항에서 책수를 기재하고, 245필드의 권차 기술부분에는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 권차와 권차 표제를 245필드에 기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력형식은 본표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권차정보를 기술할 수 없어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권차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245필드의 권차(\$n)에는 개별권차나 부분권차, 완질의 권차 내용을 기술한다.

둘째, 완질이나 부분권차를 기술한 경우에는 권차표제(\$p)를 기술하지 않고 300 형태사항에 권책 수를 기술하고 내용주기에 권차와 권차표제를 짝지어 기술한다.

셋째, 개별권차와 권차표제의 기술은 권차 별로 목록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권차와 권차 정보 기술의 개선안〉

245 11 \$a(재미있는) 수학여행.\$n1-4 / \$d김용운,\$e김용국 지음
300 \$a4책 ; \$b삽화 ; \$c26 cm

245 11 \$a(재미있는) 수학여행.\$n1-2 / \$d김용운,\$e김용국 지음
300 \$a2책 ; \$b삽화 ; \$c26 cm

245 11 \$a(재미있는) 수학여행.\$n1,\$p수의 세계 / \$d김용운,\$e김용국 지음
300 \$axi, 222 p. ; \$b삽화 ; \$c26 cm

245 00 \$a조선말큰사전.\$n1-2 / \$d조선어학회 지음
300 \$a2책 ; \$b삽화 ; \$c26 cm
500 \$a전질 6권 중, 권 3-6은 “큰사전”으로 개제됨

245 00 \$a큰사전.\$n3-4 / \$d한글학회 지음
300 \$a2책 ; \$b삽화 ; \$c26 cm
500 \$a전질 6권 중, 권1과 2의 표제: 조선말큰사전 / 조선어학회 지음

5. 책임표시에서 저작역할어 기술방법 개선안

KCR4에서 저작역할어가 명사형으로 저자명 앞에 놓였을 때 저자명 앞에 쌍점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일반 책임표시사항의 기술과 동일하게 역할어를 저자명 뒤에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목록의 기술은 으뜸정보원에 있는 정보를 전사하는 의미도 있으나, 대개는 해당 정보를 옮겨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록 저작역할어가 저자명 앞에 기술되어 있다하더라도 순서대로 기술하기보다는 저자명 뒤에 역할어를 옮겨 적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목록데이터의 입력이 불편하다

둘째, 역할어 다음에 쌍점을 기술하여 목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구두점을 사용하게 한다.

셋째, 일반적인 저작 역할어 입력형식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저작역할어는 저자명 뒤에 기술한다.

〈KCR4에 따른 기술한 예〉

한글학회50년사 / 엮은이: 한글학회 50돌기념사업회

Mastercam version 7.2c [전자자료] / 공저: 권동호, 박용민

〈개선안 : 일반적인 책임사항의 기술예로 작성한 예〉

한글학회50년사 / 한글학회 50돌기념사업회 엮음

Mastercam version 7.2c [전자자료] / 권동호, 박용민 공저

6. 4인 이상 합저서의 목록기술의 개선안

“중합표제나 대표표제 없이 각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만 열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4 저자 이상의 합집은 열기된 것 중의 첫 저작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생략부분은 동양서의 경우 석점 줄임표 없이 ‘외’ 또는 ‘外’를, 서양서의 경우 석점 줄임표 다음에 ‘et al.’을 각괄호로 묶어 표시한다.”라고 KCR4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CR4에는 이 규정에 관한 목록을 예시하면서 규정의 내용과 예시를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만큼, 규정과 예시가 합치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4인 이상의 합집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먼 그대의 손 / 김준성. [외]’의 형식이 아니라 ‘먼 그대의 손 [외] / 김준성 [외]’의 형식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인 이상 합집의 올바른 목록의 예시〉

먼 그대의 손 [외] / 김준성 [외]

내용: 먼 그대의 손 / 김준성 -- 내가 네 사촌이냐 / 이청준 -- 금의환향 / 김주영 -- 검은 댕기 두루기 / 한승원 -- 세월의 너울 / 김원일 -- 달아난 악령 / 이문열

V. 결 론

지금까지 KORMARC의 245필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목록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물론 KORMARC 통합서지용이 나오면서 개정된 KCR4를 수용하게 되어 국내의 목록규칙이 일원화되고, 기술형식이 통일되었다는 많은 장점도 있으나 보다 품질 좋은 목록을 위해서는 잘못된 이론과 기술형식은 하루 빨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45필드의 식별기호 정의를 세분화 하여 본표제의 반복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식별기호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었다.

둘째, 245 필드에서 관제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경우 현재의 KORMARC 지시기호 사용법은 부적절 한 바, 원괄호를 사용하여 관제를 기술하는 방법과 표제지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책임표시사항에서 식별기호(\$e)의 사용법은 너무 실무중심에 치우쳐 기술하고 있는 바, 이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KCR4에서 나타나 있는 권차와 권차정보의 기술의 모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책임표시에서의 저작역할어 기술방법 가운데 저작역할어가 저작자 앞에 오는 경우 KCR4의 규정이 너무나 보편성이 없기에 일반적인 저작역할어 기술방식을 따라 기술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4인 이상 합저의 목록기술에 대해 KCR4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과 예시의 내용이 서로 합치하지 않는 바, 이를 지적하고 올바른 예시를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서지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공청회 자료.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10.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통합서지용.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6.
- 김정현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61권 제1호(2006. 6), pp.89-113.
- 심 경. “MARC는 죽었는가?.” 도서관문화, 제50권, 제2호(2009. 2), pp.78-87.
- 오동근 역. 영미목록규칙 제2판 핸드북. Maxwell, Robert L. 저. 대구 : 태일사, 2005.
- 이경호 “한국문헌목록정보(KORMARC)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9. 9), pp.295-322.
- 이경호, 김정현. 자료목록법 : KORMARC · MARC 21을 중심으로. 제3판. 경산 : 대구대학교출판부, 2007.
- 이경호, 김정현.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12), pp.201-223.
- 이창수.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5. 9), pp.137-148.

- 정옥경. “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1998. 9), pp.81-96.
-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3.
- Byrne, Deborah J. *MARC Manual : Understanding and Using MARC Records, 2nd ed.*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8.
- Fattahi, Rahmatollah.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0, No.2(1995), pp.25-50.
- Library of Congress. *MARC 21 Concise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 2004 Concise Edition.* <<http://www.loc.gov/marc/bibliographic/ecbdhome.html>> [cited 2009. 02. 11].
- Taylot, Arlence G.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10th ed. Westport, Conn. : Libraries Unlimited, c2006.

